



농협 남원시지부, 고향사랑기부금 1300만원 기탁

남원시는 NH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가 12일, 고향사랑기부금 13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NH농협 남원시지부는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 올해는 13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하면서 남원시민들의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게 됐다.

오영석 지부장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재 양성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남원을 조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NH농협 남원시지부에서 남원시 고향사랑기금 조성에 큰 도움을 주신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밝고 희망찬 것 같다"며,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 에 앞장서 주신 남원시지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은행 남원, 신용카드 적립금 8450여만원 전달

남원시는 12일,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에서 2024년도 한 해 사용한 남원시청 제휴카드 적립금 8450여만원을 시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적립금은 남원시와 농협 제휴카드사 간의 협약을 체결해 발급한 남원시 복지포인트 카드, 법인카드, 보조급 카드 사용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한 것으로,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9억 76만원을 남원시에 전달해 왔다.

남원시는 시 예산으로 지출되는 물품 등 소모성 경비 지출에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무명의 예산잔액을 유도하고 있으며, 카드 이용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예산에 편성, 지역사회에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행복나눔 건강플러스 운영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자남)는 지난 11일, 관내 4동 경로당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1회 관내 5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행복나눔 건강플러스'를 운영한다.

건강교실은 1일 1가구 소분행정의 일환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로당을 찾아가 기초 건강검진(혈당·혈압 등), 건강상담, 계절별 보건교육, 민생질환 및 노인성 질환 예방 수칙 안내 등을 제공하는 마을건강 복지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지역 주민들에 꽃 화분 전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충전하고자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꽃 화분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꽃을 보며 환한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1일 1가구 방문에도 활용되어 지역민들의 활력을 높일 예정이다.

최근 금동은 김봉래 동장과 지속적인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청취하고 사소한 어려움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근래 수도가 고장난 어르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의료관광 중심지

2024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1위... 사업비 5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4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성과 평가에서 웰니스 분야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문체부가 1차 사업추진 발표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웰니스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경쟁해 최고점을 획득해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전북은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과 인근 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접목한 협력체계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에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웰니스 의료관광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평가 결과는 전북 웰니스 의료관광의 잠재력을 입증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미식, 전통, 한(韓) 문화 등을 결합한 전북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의료관광 지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JB문화공간, 클래식 거장들과 함께 '살롱 드 클래식#2' 성료

전주의 봄밤이 세계적인 클래식 거장들의 선율로 물들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에서 성기선 전주사랑 예술감독과 함께하는 '살롱 드 클래식#2'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열린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음악이 JB문화공간을 가득 채웠고, 세계적 수준의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 빛어내는 하모니는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살롱 드 클래식'은 클래식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하는 JB문화공간만의 특별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성기선 지휘자의 품격 있는 해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무대에는 독일 에센 음대 피아노와 교수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헨리 지그프리트손(Henri Sigfridsson), 바이올리니스트 채유미, 첼리스트 김민하, 피아니스트 류은자가 함께했으며, 특히 성기선 지휘자가 직접 비올라 연주자로 나서 더욱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연주곡 또한 깊은 여운을 남겼다. 드라마 밀희의 삽입곡으로 유명한 슈베르트의 '피아노 판타지 단조'는 서정적인 감성을 자아냈고,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1번 g단조'는 밝



은 음색과 집시 음악 특유의 열정을 담아냈다. 이어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3악장'이 무대를 장식하며 공연은 절정에 달했다.

공연을 찾은 한 관객은 "이곳에 올 때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아 가는 기분"이라며 "오늘 공연은 마치 봄을 기념하는 작은 축제 같았다"고 감동을 전했다.

/O만호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교(원)감·교무부장 협의회·청렴 서약식

장수교육지원청(수령곤 교육장)은 지난 11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감 및 교무부장, 업무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교(원)감·교무부장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5 장수교육지원청 경영계획 공유, 각과 주요 전달 사항 안내, 단위학교 주요 교육현안 협의 및 청렴 서약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설명회(강사 망성초 교사 백승진)가 진행되어 교(원)감들과 교무부장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5년 장수교육지원청 역점 추진과제인 '맞춤형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강화 △디지털 수업혁신을 위한 미래역량 신장 △문화다양성교육 및 생태 전환교육을 통한 공동체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통한 자치와 협력의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위학교별 역점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안전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능단 안전교육을 12일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2025년 포획기능단으로 선발된 김제시 거주 수렵인 30명이 참석했으며, 김제경찰서와 협력해 총기 취급 및 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총기 안전 수칙, 포획 구역 준수, 포획물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료 채취 방법 등 포획 활동 전반에 걸친 필수 사항이 다뤄졌다.

특히 주거지 및 축사 100m 이내 총기 사용 금지와 허가된 포획 구역 내에서의 활동 준수를 강조하며, 총기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령곤 교육장은 "동행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장수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는 더 특별한 장수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며 교(원)감 및 교무부장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정읍경찰, 대한노인회와 함께 봄철 교통안전교육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11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대한노인회 어르신 50명 대상으로 교령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증가하는 교령자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교통 사망사고 사례를 들어 무단횡단 금지,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걸다)' 등의 내용을 교령자 교통사고 예방 동영상 활용에 안전한 보행 및 자전거 안전운전 방법을 교육하며 교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과 사후오바이와 이륜차 안전모 착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평소 교통안전 활동을 하면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 질문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르신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정읍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민원실 직원 대상 친절·청렴 교육

남원시는 12일,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한 응대의 중요성 △상황별 민원 응대 요령 △고충 민원 처리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친절하고 효과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인시발 교육도 함께 진행해 △가본인사 △응대 필수 표현 △간단한 질문 응답 등 민원 응대에 필요한 수어 표현을 교육해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친절한 민원 서비스와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일환 행정복지국장은 "친절한 민원 서비스는 시민과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효과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청렴공 릴레이'로 공직사회 변화 추진

순창군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공 릴레이'를 추진하며, 실천 중심의 청렴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렴공 릴레이'는 부서원들이 부서장이 실천해 주기를 희망하는 청렴과제 10개를 제출하면, 부서장이 이 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릴레이는 최영일 군수부터 시작해 기획예산실장을 거쳐 각 부서장과 읍·면장으로 이어지며, 오는 5월까지 매주 1~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군수로부터 첫 청렴공을 전달받은 송정용 기획예산실장은 무작위로 뽑은 실천과제 중 '회식 때 건배사 하지 않기'를 실천 과제로 받았다. 이는 회식 자리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줄이고,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각 부서장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청렴과제를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청렴공 릴레이는 형식적인 청렴 캠페인에서 벗어나 부서장부터 솔선수범해 실질적인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시 내장상동, '행복 나눔 텃밭'에 감자 심어

정읍시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행복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지감자를 식재했다. 5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심어진 감자는 향후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주민센터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복지 가로부터 후원받은 600여 평 규모의 텃밭에서 감자를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행복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은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매년 감자를 식재하고 수확한 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저소득 취약계층에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수확된 감자는 공유농장고에도 기탁될 예정이다.

이신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모두가 행복한 내장상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 준 기관·단체와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준 독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